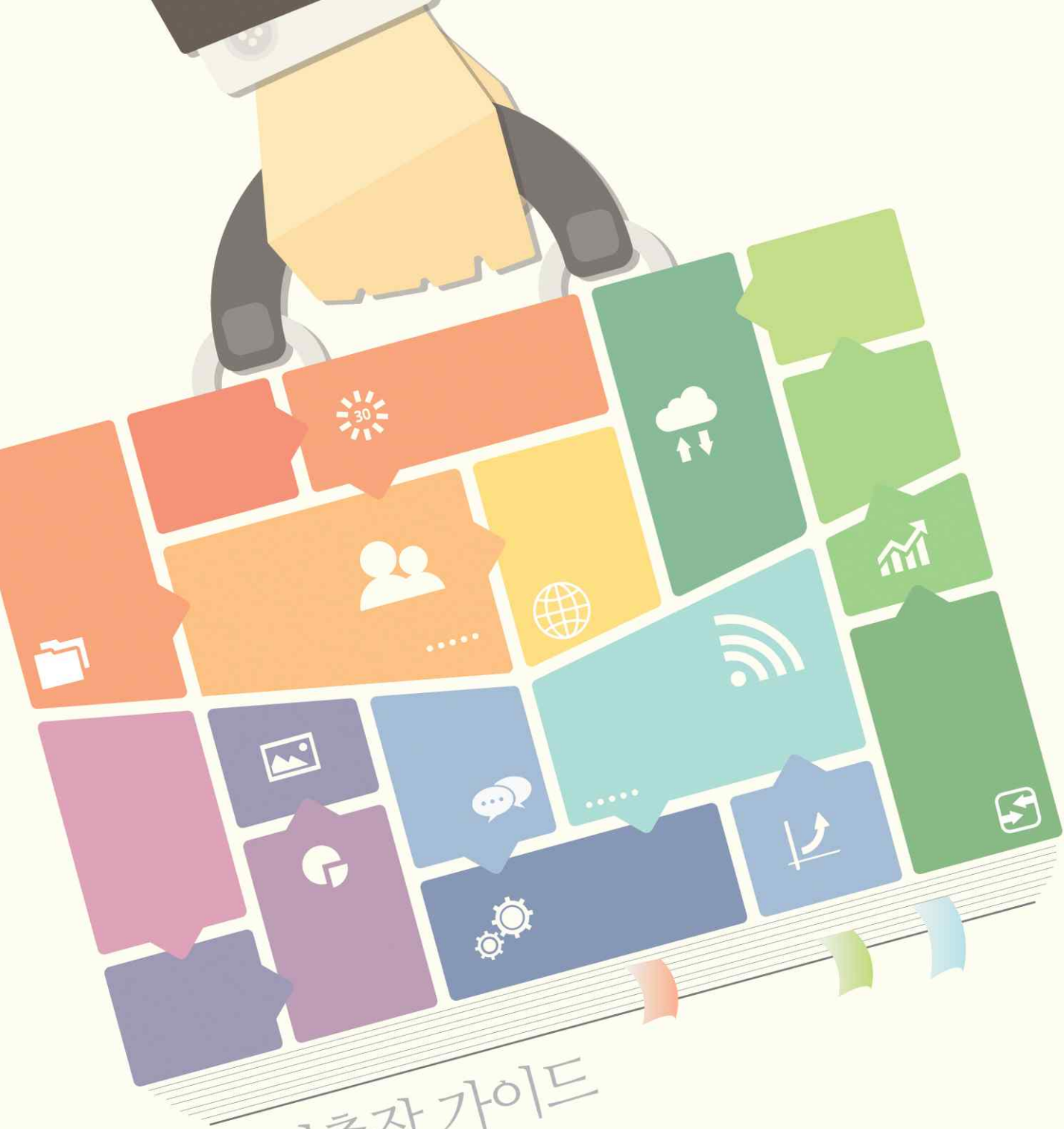




해외출장 가이드

미얀마 참고자료

【 목 차 】

I. 무역관 연락처 및 위치 01

II. 미얀마 경제현황 02

1. 개 요
2. 정치 · 경제 동향
3. 무역 및 투자동향
4. 우리나라와의 무역 및 투자동향

III. 출장정보 27

1. 출입국 / 비자
2. 기후
3. 현지화
4. 전화
5. 전기 / 교통
6. 보건위생
7. 주요 연락처
8. 유용한 현지어 표현
9. 문화적 주의 사항
10. 비즈니스 에티켓

IV. 주요 도시 및 문화 유적 32

1. 양 곤
2. 양곤 주변
3. 지방도시
4. 자연 관광지





I. 무역관 연락처 및 위치

☐ 무역관 연락처

- 전화/팩스 : (95-1) 9253346~50/(95-1) 9253351
- 이메일 : yangonkotra@gmail.com

☐ 무역관 위치 : #07-3/4/5, Junction City Tower, Pabedan Township, Yangon



○ 교통편 안내

- 양곤 국제공항에서 무역관에 오기 위해서는 택시를 이용해야 함. 택시에 미터기가 없어 사전에 가격을 협상하고 승차해야 함. 요금은 7달러 정도이며 50분가량 소요
- 콜택시 서비스로 Grab 이용이 가능하며, 택시대신 호텔 공항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요금은 35달러 정도



II. 미얀마 경제현황

1. 개요

가. 국가개요

국명	미얀마 연방공화국 /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7개 State(Chin, Kachin, Kayah, Kayin, Mon, Rakhine, Shan)와 7개 Division(Ayeyarwaddy, Bago, Magway, Mandalay, Sagaing, Tanintharyi, Yangon)로 구성 ○ 1989년 버마에서 미얀마(Strong & Fast 의미)로 국명 변경
위치	○ 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위치 ○ 동부는 태국 및 라오스, 북부는 중국 ○ 서부는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접경
면적	67만 6,563km ² (한반도의 약 3배, 남한의 약 6.6배)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연평균 기온 27.08℃, 연평균 강우량 2,513mm) ○ 여름 : 2월 말 - 5월 중순 ○ 우기 : 5월 하순 - 10월 말(거의 매일 비) ○ 겨울 : 11월 초 - 2월 중순(한국의 초가을 날씨와 유사)
수도	네삐도(Nay Pyi Taw)
인구	5,337만 명(2017년 World Bank 발표)
주요 도시	○ 양곤, 만달레이, 뻘마나, 빠떼인, 바고, 삐 등 - 양곤 : 2005년 11월까지 수도였으며, 현 경제 중심지(교역의 80% 수행) - 네피도 : 2005년 11월부터 행정부가 이전한 새로운 수도 - 만달레이 : 제2의 도시로 중북부 경제 중심지 및 불교 중심지이며, 영국 식민 통치 전 제국의 마지막 수도 - 빠떼인 : 양곤에서 서쪽으로 160km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도시로 쌀 및 수산물(새우) 생산 중심지
민족	버마족(70%), 소수족(샨, 카렌, 카친, 몬, 친족 등) 130여 종족(25%), 기타(중국계(3%), 인도계(2%))
언어	미얀마어(정부, 기업인, 호텔 종사자들 영어 구사), 소수민족 고유어
종교	불교 89.4%, 기독교 4.9%, 이슬람교 3.9%, 힌두교 0.5%, 토속신앙 1.2%, 기타 0.1%
건국(독립)일	1948년 1월 4일(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 원수 (실권자)	○ 대통령 : 윈 민(Mr. Win Myint), 취임일 : 2018년 4월 1일 (5년 임기, 1회 연임 가능) ○ 부통령 : (1) 민 수웨(Mr. Myint Swe), 취임일 : 2016년 3월 30일 (2) 헨리 빈 티유(Mr. Henry Van Thio), 취임일 : 2016년 3월 30일



나. 경제 지표

GDP	US\$ 651억 6,884만(2018년, IMF)
실질 경제 성장률	6.7%(2018년)
1인당 명목 GDP	US\$ 1,297달러 68센트(2018년, IMF)
실업률	4.0%
물가 상승률	5.9% (2018년, IMF)
화폐단위	Myanmar Kyat (Kt:짜트)
환율	US\$1 = Kt1,509.3 (2019년 7월 30일 기준, 중앙은행 고시환율)
외채	US\$ 91억 1,400만 (2016년 말)
외환 보유고	US\$ 89억 1,300만 (2016년 말)
산업구조	농업(23.3%), 공업(36.3%), 서비스업(40.4%) (2017-18회계연도, CSO)
교역규모	2017~2018 회계연도(2017.4.1~2018.3.31) ○ 수출 : US\$ 148억 5,066만 달러 ○ 수입 : US\$ 186억 8,695만 달러 ○ 무역수지 : US\$ -33억 5,376만 달러
	2018~2019 회계연도(2018.4.1~2019.3.31) ○ 수출 : US\$ 171억 2,748만 달러 ○ 수입 : US\$ 188억 2,379만 달러 ○ 무역수지 : US\$ -16억 9,632만 달러
교역품	○ 수출 : 천연가스, 옥, 의류, 쌀, 검은 콩, 광물, 수산물 및 관련품 ○ 수입 : 기계 및 운송장비, 정유, 비철금속 및 제조품, 전자제품 및 부품류

자료원 : IMF, 미얀마 중앙통계청(CSO), 미얀마 중앙은행



다. 한-미얀마 관계

체결협정	무역협정(1964년 체결, 1967년 개정), 뉴스교환협정(1972년), 항공협정(1978년), 임업약정(1999년), 이중과세방지협정(2002년), 서비스무역협정(2007년), 외교관 및 특별여권 비자면제협정(2011년), 투자보장협정(2014년)
교역규모	○ 한국의 대미얀마(2017년 교역규모) - 수 출 : US\$ 5억 7,317만 달러 - 수 입 : US\$ 4억 6,334만 달러 - 무역수지 : US\$ -1억 984만 달러
	○ 한국의 대미얀마(2018년 교역규모) - 수 출 : US\$ 5억 3,406만 달러 - 수 입 : US\$ 5억 3,658만 달러 - 무역수지 : US\$ -253만 달러
교역품	○ 우리나라 수출 : 식물, 수송기계, 섬유제품, 플라스틱제품, 산업기계 등 ○ 우리나라 수입 : 섬유제품, 농산물, 신변잡화, 광물성연료, 공예품, 비철금속제품 등
투자교류	○ 미얀마 투자위원회 승인 기준(2019년 6월 말 기준) : 175건, 승인(US\$ 39억 6,267만) ○ 한국수출입은행 신고 기준(2019년 3월 기준) : 1,124건, 신고(US\$ 57억 5182만), 투자(US\$ 33억 8,900만 달러)
교민	약 3,106명(2016년 외교부 추산)

자료원 : 미얀마 투자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2. 정치 경제 동향

가. 정치 동향

□ 평화적 정권교체 성공

- 2011년 군부의 정권 이양 및 민간 정부 출범
 - 2011.2월 연방 상하원 합동의회에서는 테인 세인(Thein Sein) 총리를 임기 5년의 미얀마 민선 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 기존 군정 통치 기구인 국가 평화발전 위원회(SPDC)는 2011.3.30. 미얀마 민간 정부에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해체
- 2016년 신정부 출범
 - 2015.11.8. 미얀마의 첫 민주선거라 할 수 있는 총선 실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LD)이 집권
 - 2016.3.15. 연방 합동의회에서 NLD의 떤 쉐(Htin Kyaw)가 대통령으로 선출
 - 2018.4.1. 건강문제로 사임한 떤 쉐를 이어 윈 민(Mr. Win Myint) 대통령 취임
- 정부 조직
 - 테인 세인 정부는 대통령실 6개 부처와 연방정부 36개 중앙부처로 구성
 - 2016년 신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대대적으로 조직개편 실시, 대통령실 2개 부처와 연방정부의 20개 중앙부처로 개편

□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 상황

- 국내 정치 상황
 - NLD의 수장인 수지 여사는 외교부 및 대통령실 장관이자 국가자문역을 역임하고 있으나, 사실상 친정체제를 통해 실권 행사
 - 민간 정부가 집권하였으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군부의 권력이 아직 막강한 상황
 - * 군부는 헌법에 의해 의회 664석 중 166석(25%)을 자동으로 보장 받음.
- 대외 관계 개선
 - 2011년 이후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쳐 미국 등 서구권과 관계 급격히 개선



- * 수지-오바마 면담('16.9월)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및 일반특혜관세(GSP) 지정
-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과의 관계도 더욱 긴밀해 짐.
- * 중국, 미얀마에 771km 송유관 설치 완료 및 가동 합의(2017.4월)
- 소수민족 갈등 심화
 - 미얀마는 7개 Division과 7개의 State로 구성된 다민족 연방국가로서, State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자치주의 성격을 보임.
 - 버마족이 다수(70%)이나, 샨, 카렌, 카친, 몬, 친 등 130여 소수민족이 존재
 - 2017.8월, 미얀마 정부와 라카인주의 로힝야족 사이 무력 충돌 발생
 - 이후 미얀마군의 진압과정에서 사상자 및 이민자 발생, 미얀마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증가, 미국, 유럽 등 해외 투자 감소
 - 특히 EU는 2019년 로힝야 사태 및 미얀마 아동노동을 문제 삼아 일반특혜관세(GSP) 철회를 검토중

☞ 라카인(Rakhine)주, 로힝야(Rohingya) 사태

로힝야족은 전 세계에 약 220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약 130만 명이 미얀마에, 그 중 약 100만 명이 방글라데시 접경인 라카인주에 거주하고 있음. 방글라데시에도 30-50만 명, 사우디아라비아에 약 40만 명, 파키스탄에 약 20만 명이 살고 있음.

로힝야족은 자신들이 8-9세기 무렵부터 아라칸(지금의 라카인) 지역에 정착하였던 아랍인들의 후손이라고 주장.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19세기 후반 영국 식민지 시절에 방글라데시나 주변국에서 온 불법 이주자로 간주하고 벵갈리(Bengali)라고 부름.

언어는 인도 아리아어 계통의 로힝야어를 사용하고 종교는 이슬람교이며, 이로 인해 불교가 국교인 미얀마에서 사회적·종교적 갈등이 발생함. 미얀마 정부와 로힝야족 사이의 갈등은 오래된 일이나, 1978년 군부의 나가민 작전(불법 이주자 추방) 이후 문제가 격화되었으며, 이후에도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다 2017.8.25.일 로힝야족 무장단체가 미얀마군 초소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자 정부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4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나. 경제 동향

□ 신정부의 경제 정책

- 주요 경제 정책 기구
 - 신정부는 국가경제조정위원회, 국영기업민영화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등을 설립, 경제개혁 추진
 - 기재부, 상무부 장관을 비롯한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가경제조정위원회(NECC, National Economic Co-ordination Committee)는 월례 회의를 통해 무역, 재정, 통화, 투자 등 경제정책을 검토하고 조정
- 정부의 정책 방향
 - (민영화) 과거 군부 독점 국영기업의 불투명한 행태를 방지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
 - (개방) 폐쇄적 경제정책을 대외개방 노선으로 전환하였으나, 제도적·법적 장애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 잔재
 - (자본시장) 주식거래 개시(2016년) 및 보험시장 개방(2017년)등 고도화 추진
 - (재정) 재정적자 누적으로 무상원조·차관 유치를 통해 경제정책 추진 노력

□ 거시 경제 환경

- 2018년 경제성장률 6.7%
 - 2018년 미얀마의 실질 GDP 성장률은 6.7%로 2013년 이후 평균 7%의 성장세 지속(2014년 8.0%, 2015년 7.4%, 2016년 6.3%, 2017년 6.3%, IMF)
 - 에너지 및 통신 분야 투자 확대, 건설 및 서비스 분야 성장, 봉제기업 수출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등이 성장 동력
 - 2016년 정권 교체로 인한 외국인 투자는 일시적으로 주춤했으나 2016년 신 투자법 및 2017년 회사법 개정으로 투자는 다시 증가세
 - 2017년 8월 로힝야 사태에 따른 미국, 유럽기업의 투자철회로 외국인투자 감소로 향후 성장세에 악영향 우려
 -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최근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빈곤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내수시장 성장은 꾸준히 지속될 전망



○ 물가와 환율 변동

- 낮은 외환보유고, 환율변동성 확대, 물가 상승, 미국 달러 강세 등은 경제적 불안 요소
- 미얀마의 취약한 외환시장으로 인해 2018년 환율 변동성이 한국의 2배에 달함.
- 단기간 고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2018년 5.9%의 인플레이션 발생
 - * 공공부문 급여 인상, 전기료 인상,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무역적자 확대, 정부의 미흡한 거시경제 관리 능력 등이 주원인.
-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2018년 최저임금 33% 인상
 - * 2018년 5월, 최저임금을 월 144,000짜트로(약 100 USD)로 인상함.

○ 낮은 수준의 금융·자본시장 자율성

- 은행업 개방(2014년)에도 외국계 은행은 소매금융 및 현지기업금융 거래 불가
- 2016년 주식거래가 개시되었으나 외국인 주식거래 제한
- 개인계좌 개설이 어렵고, 이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율은 매우 낮음
 - * '16년까지 신용카드 발급 180만건, 총 인구의 3% 수준
- 2019년 외국은행의 현지출자 허용 및 보험업 허가로 금융시장 발전 전망

○ 재정수지·경상수지 쌍둥이 적자 고착화

-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발생
-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 수출액 감소
 - * 천연가스 2016년 까지 미얀마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
- 지하경제 규모가 크고 정확한 세수과약이 어려운 반면, 신정부의 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해 공공지출은 늘어나 재정적자 누적

다. 산업 동향

□ 산업 개요

○ 산업 구조 고도화

- 과거 미얀마는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양, 고온의 기후는 3모작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농업이 국가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음.
- 그러나 2011년 이후 서비스업이 농업의 규모를 추월하였으며, 2012년부터 제조업·광업 또한 농업의 규모를 추월하여 산업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

< 미얀마 산업 구조 >

(단위: 십억췌, %, 자료: CSO)

구 분		2000	2005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비율	
1차 산업	Agriculture	1,245	4,718	11,350	12,316	12,873	13,418	13,748	13,964	15.4
	Livestock & Fishery	201	941	4,141	4,632	5,239	5,907	6,506	7,058	7.8
	Forestry	14	77	1,896	185	138	144	587	831	0.9
	소 계	1,461	5,736	15,680	17,133	18,250	19,468	20,300	21,106	23.3
2차 산업	Energy	5	20	2,746	2,920	4,011	3,688	2,669	3,422	3.8
	Mining	10	69	418	548	784	760	835	902	1.0
	Processing & Manufacturing	183	1,573	10,299	11,554	13,044	15,130	18,189	21,575	23.9
	Electric Power	3	28	615	696	925	1,030	1,112	1,207	1.3
	Construction	46	462	2,516	3,057	3,777	4,455	5,134	5,720	6.3
	소 계	247	2,152	16,594	18,774	22,541	25,142	27,940	32,828	36.3
3차 서비스	Transportation	146	1,283	6,113	6,927	7,509	8,240	8,944	10,003	11.1
	Communications	7	129	606	914	1,221	1,500	1,639	1,785	2.0
	Financial Institutions	3	10	85	114	136	173	239	297	0.3
	Administrative & Social Services	39	113	1,326	1,683	2,026	2,687	2,806	2,920	3.2
	Rental & Other Services	35	197	1,096	1,324	1,537	1,812	2,159	2,718	3.0
	Trade (도소매)	614	2,667	9,759	11,144	12,218	13,759	15,717	18,789	20.8
	소 계	844	4,399	18,985	22,106	24,646	28,171	31,505	36,515	40.4
합 계 (GDP)		2,553	12,287	51,259	58,013	65,437	72,781	79,760	90,450	100

□ 농업

○ 미얀마의 기간 산업

- 농업의 GDP 비중은 18.4%로서 제조업(20.7%), 도소매업(18.9%)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인구의 70%를 차지하는 기간산업
- 다양한 기후 및 토지대를 자랑하며 60개 이상의 품종이 재배되고 있음.
- 낙후된 농기계·생산기술로 인해 생산성은 낮은 편

○ 규모 및 주요 품목

- 미얀마 농산물 총 재배(Gross Area Sown) 면적은 5,268만 에이커에 달하며 순 재배(Net Area Sown) 면적은 3,301만 6,000헥타르로써 동일 토지를 여러 번 이용하는 다모작(Multi-cropping)이 일반적
- 콩 등 기타 농작물은 민간에서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음. 주로 쌀, 콩, 깨, 옥수수, 캐슈넛, 양파, 마늘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중 콩이 제 1 수출 품목

- 최근 중국, 인도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주요수출산업으로 다시 성장

○ 농업 정책

- 미얀마는 민관합작 종자개량 프로젝트 추진, 낙농업 발전 프로젝트 등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 중
- 특히 쌀은 미얀마의 주식으로 미얀마 정부에서는 쌀의 증산을 통한 국민 생활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는 농업분야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제 완화 및 토지 관련 법률 정비에 대해 노력하고 있음.

□ 축산·수산·임업

○ 축산업

- 물소·돼지·소·염소 등을 사육하고 있으나, 사육기술이 낙후되어 있음.
- 과거에 제한되었던 살아있는 물소·소의 수출을 2017.8월부터 허가

○ 수산업

-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이자(6위, 수출액의 3.7%) 7대 육성품목 중 하나
- 美 경제제재 해제로 새우 등 주요 수산물의 미국수출이 가능해졌으나, 검역 통과가 걸림돌로 작용
- 최근 양곤 뚝뎀(Twante) 지역에 수산물 생산·가공 특구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정부지원이 활발해짐

○ 임업

- 국토의 42.9%가 삼림지대이며, 세계 1위 티크(Teak) 보유국(전세계의 75%)
- 티크는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이었으나, 삼림면적 감소에 따라 2014.4월부터 티크 수출을 통제하고 완제품·가공 수출만을 허용
- 미얀마 정부는 2017~2027년간 삼림 회복을 위한 조림계획 추진



□ 제조업

○ 현황

- 미얀마 GDP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봉제업, 농·수산물 가공 등 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부분
- 저유가의 영향으로 천연가스를 제치고 봉제제품이 2018년부터 미얀마 최대 수출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음.
-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봉제업 등 미숙련·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품목 위주로 이루어짐. 따라서 고용창출 효과는 높은 반면, 고부가가치 창출이나 기술 개발은 낮은 수준
- 소비재 수요 증가 및 경제규모 성장과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본재·원자재를 자체 생산하기 어려워 주로 해외 수입을 통해 조달

○ 열악한 인프라와 제조업 환경

- 전력·도로·항만 등 기본 인프라가 미흡하고 투자·물류환경 등도 열악
 - * 전력보급율 30%대, 전체도로중 비포장도로 비율 44%
- 지속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한 기술집약적 산업 발전 지체
- 세계경제포럼 2015-16년 글로벌 경쟁력지수에서 인프라 부문(134위/140)과 세계은행의 2016년 물류경쟁력지수(113위/160)에서도 하위권 기록
- 진출기업의 원자재·제품 수급 애로 및 가격경쟁력 확보에 불리

□ 에너지 · 광물

○ 풍부한 지하자원

- 미얀마는 복잡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각종 에너지·광물 자원이 매장될 수 있는 조건
 - * 천연가스 매장량 : 2,832억 m³ (세계 40위), 원유 매장량 : 5천만 배럴 (세계 75위)
- 우라늄이 포함된 페그마타이트(Pegmatites), 알라스카이트(Alaskite) 등 중요 광물과 루비·옥(Jade) 등 귀금속 매장량도 풍부

○ 개발 현황

- 미얀마는 기술력과 자본 부족으로 글로벌 대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자



원을 탐사하고 개발하고 있음.

- 포스코에서 2009년 이후 본격적인 탐사를 진행하여 가스전을 개발, 2017년 까지 천연가스가 제 1 수출품목을 차지
 - *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는 최대 국영기업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국가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

라. 정책 및 규제

□ 신정부 정책 방향과 기업 환경

○ 신정부의 정책

- 미얀마 정부는 2016년 7월에 ‘민족화합을 기반으로 한 균형잡힌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 국민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농업 개발을 포함한 산업화, 환경 보존을 기본으로 한 도시개발, e-government를 통한 부정부패 없는 개방된 정부를 강조
- 12개의 주요 경제정책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환경 개선,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개선, 인적자원개발 등 기업환경개선, 국영기업 민영화, 안정적인 국고 및 조세관리 등 정부자체 혁신
- 그러나 구체적 정책을 기대한 기업인 등은 정책내용이 모호하다는 불만과 실망감을 표시하였음.

○ 기업 환경

- 지난 50년간 폐쇄정책을 추진하여 내국기업에 비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과 제한이 심각한 상황
- 공무원과 일반 국민이 외국인/기업을 보는 시선도 여전히 부정적
- 신정부는 민간기업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신투자법 시행 및 회사법 개정을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완화할 계획
- 지속적으로 기업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실행되지 않거나 진행이 매우 더딘 편
- 특히 계약실행, 투자자보호 등의 사업 환경이 매우 열악



□ 무역·통상 정책 변화

- 정부의 무역·통상 정책
 - 미얀마 정부는 수출주도를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수출전략 (National Export Strategy: NES)을 수립하고 수출주도 산업부문으로 농식품 가공업, 임업, 섬유봉제업, 수산업, 관광업, 고무, 쌀을 지정·육성
 - 그러나 NES는 수출주도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음.
- 일부 품목에 대한 외국인 무역업 허가
 - 2017. 7월 미얀마 내 외국기업에 대해 3개 분야(농업, 의료기기, 건설자재)에 대한 무역업 운영을 허가.
 - 외국기업의 활발한 시장 참여를 유도해 정부 장려 산업분야의 균형가격을 조정, 내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정책으로 현지 경제 전문가들 분석
- 對美 수출입 가능
 - 경제제재 해제로 기업 활동과 금융거래 제한이 사라져, 미국 기업의 미얀마 진출이 활발해지고 미얀마 상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또한 미국 해외자산통제국의 대미얀마 제재를 종료하고, 특별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에 포함된 203개의 미얀마 주요기업들이 제외되었음.
 - SDN 제재에서 풀린 미얀마 대기업들도 국제 거래 및 외국기업과의 자유로운 합작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투자확대 및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GSP 부여 및 제재해제 조치는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함께 경제 전체의 발전과 한 단계 추가 도약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 정부의 개혁·개방을 뒷받침하는 동력을 제공



마. 경제 이슈

□ 경제제재 해제

○ 2016년,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

- 2016년 9월 미국은 '89년에 중단한 대미얀마 GSP 재개를 발표, '16년 11월 13일 부터 봉제의류 등 5,000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 부여
- 2016년 10월 7일, 20년만에 대미얀마 경제제재 조치 전격해제, 미얀마에 대한 투자, 무역,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6개 행정명령 철회, 203명의 SDN(특별제재대상)도 명단에서 제외

* 미얀마 군부 지주회사와 군부와 연계된 실세 기업인들이 모두 SDN에서 제외

○ EU의 미얀마 경제제재 재검토

- 2018년 10월에 EU는 미얀마 라카인 지역 로힝야 사태를 이유로 미얀마에 무역 제재 검토하였음.
- 2019년 5월 미얀마 대표팀과 EU 관계자들 회의 이후 EU의 미얀마에 대한 무역 제재를 보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주요 법률 및 제도 변경

○ 2017년 신투자법 시행

- 2016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통합 투자법은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장, 투자승인 절차의 간소화, 인센티브의 차별화, 투자애로 해소 등을 포함.
- 2017년 3월에 발표한 신투자법 세부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법률 적용대상, 투자형태, 금지된 사업, 사업제한 형태, 토지사용, 세금감면, 투자자의 의무 및 대우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

○ 2018년 최저임금 인상

- 2018년 5월 미얀마 정부는 기존 3,600 MMK이던 일일 최저임금을 4,800 MMK로 33% 인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생산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나, 기존 한국 진출기업 대부분이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



○ 2018년 신회사법 시행

- 미얀마는 1914년 제정된 구 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회사법을 발표
- 소유권, 지배구조, 자본 등 구시대적 회사법을 현 시점에 맞도록 개정
- 외국기업 지분이 35% 이하인 경우 내국기업으로 취급,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제한을 받지 않음.
- 이 외에도 자본감소, 대표의 미얀마 거주 규정 등 도입

○ 향후 미얀마 기업에 대한 투자 및 M&A 활성화 전망

- 외국인 지분 35% 이하는 내국기업으로 취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증가 전망
- 자본 및 지분 규정이 명확해짐에 따라 M&A도 활성화 될 전망

<NLD 신정부의 산업육성 정책 방향>

분야	NLD 산업정책 방향	→	유망분야
농업/어업	단기적으로 육성이 가능한 농업·어업·축산 분야 집중 개발, 기술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 확대	→	농업 및 수산물 생산, 비료 및 농기계, 식품가공
섬유	CMP 중심에서 고부가의 FOB생산, 원사부터 생산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 생산기술 고도화 및 기술 표준화	→	염색 및 원단 생산, 섬유기술 및 표준 전수
의료	건강보험 및 서비스 개선, 의약품 보급 및 민간병원 확대	→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의료장비, 민간 의료보험
인프라	상하수도, 전력 등 기초인프라 및 지역 개발, 대도시 공동 운송 시스템 개선	→	기초 인프라 프로젝트,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
에너지	대규모 신규 개발 지양 및 기존 시설 개선, 태양광, 바이오매스,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	신재생에너지, Smart Grid, 노후 발전 장비 개량



3. 무역 및 투자 동향

가. 무역 동향

□ 미얀마 대외교역 동향

○ 수출입 동향

- 2017-2018 회계 연도 미얀마 수출은 148억 5,060만 달러, 수입은 186억 8,690만 달러로 약 3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2018년 정부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2018.4월~9월까지를 공백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이 동안 수출은 88억 2,130만 달러, 수입은 98억 5,800만 달러 기록
- 2019년 4월까지 98억 1,210만 달러 수출, 104억 7,940만 달러를 수입하여 약 6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미얀마의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년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US\$백만	증감률
2010/2011	8,861.0	16.8%	6,412.7	53.4%	2,448.30	-28.1%
2011/2012	9,135.6	3.1%	9,035.1	40.9%	100.5	-95.9%
2012/2013	8,977.0	-1.7%	9,068.9	0.4%	-91.9	-91.4%
2013/2014	11,204.0	24.8%	13,759.5	51.7%	-2,555.5	-2,780%
2014/2015	12,523.7	11.7%	16,633.2	20.8%	-4,109.5	-60.8%
2015/2016	11,136.5	-11.0%	16,577.8	-0.3%	-5,441.3	-32.4%
2016/2017	11,998.5	6.8%	17,198.8	3.7%	-5,294.5	-2.6%
2017/2018	14,850.6	23.7%	18,686.9	8.5%	-3,836.3	-26.4%
2018년(4월~9월)	8,821.3	-40.6%	9,858.0	-47.2%	-1,036.7	-73%
2018-2019 (4월 까지)	9,812.1	11.3%	10,479.4	6.3%	658.3	-36.5%

자료원 : 미얀마 상무부(2010/2011년-2019년 4월 기준)

주 : 미얀마 회계연도는 4월 부터 이듬해 3월까지였으나 2018년부터 10월부터 이듬해 9월로 변경, 2018년은 4-9월만 집계(공백기간)

○ 주요 교역 대상국

-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 태국, 인도, 홍콩, 싱가포르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
- 최근 중국, 태국으로부터 저가 공산품 수입이 증가



미얀마 10대 수출 대상국

(단위 : US\$ 백만)

순위	국가명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8.9월 까지)
1	중국	2,910.7	4,673.8	4,596.6	5,055.4	5,698.7	2,904.4
2	태국	4,306.2	4,028.6	2,893.1	2,202.2	2,846.4	1,569.9
3	말레이시아	108.8	265.1	161.3	159.0	222.5	478.4
4	싱가포르	694.0	758.8	725.4	472.8	753.5	374.5
5	일본	513.2	556.2	393.7	784.2	956.0	334.8
6	인도	1,143.5	745.8	904.1	943.4	607.7	292.0
7	독일	40.3	68.1	85.0	219.7	380.0	282.8
8	한국	352.9	369.8	259.9	342.4	303.2	230.8
9	홍콩	489.1	288.6	282.8	204.1	363.0	230.0
10	인도네시아	60.0	86.0	139.8	125.0	123.9	62.8
-	기타	584.8	681.6	694.4	1,443.4	2,595.8	2,071.7
총합계		11,204.0	12,523.7	11,136.5	11,951.6	14,850.7	8,832.2

자료원 : 미얀마 중앙통계청(2019년 4월 발표기준)

주 : 미얀마 회계연도는 4월 부터 이듬해 3월까지였으나 2018년부터 10월부터 이듬해 9월로 변경, 2018년은 4-9월만 집계(공백기간)

미얀마 10대 수입 대상국

(단위 : US\$ 백만)

순위	국가명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8.9월 까지)
1	중국	4105.4	5019.9	6,395.4	5,749.0	6,086.5	3,115.2
2	싱가포르	2910.2	4137.3	2,970.9	2,494.3	3,084.6	1,806.8
3	태국	1376.9	1678.9	1,972.8	2,086.2	2,228.6	1,398.5
4	인도	493.5	594.9	807.3	999.6	860.9	508.4
5	말레이시아	839.6	743.9	588.7	821.3	867.2	478.4
6	인도네시아	438.8	550.5	601.9	702.1	901.4	460.3
7	일본	1296.2	1749.3	1,452.2	1,247.5	966.6	334.8
8	베트남	169.8	241.1	290.1	405.7	587.3	292.5
9	한국	1217.9	492.9	396.6	523.6	495.2	193.9
10	미국	79.6	494.0	127.6	498.5	431.6	162.5
-	기타	831.0	929.9	973.9	1,683.3	2,177.1	1,102.0
총합계		13,759.5	16,633.2	16,577.8	17,211.1	18,687.0	9,853.3

자료원 : 미얀마 중앙통계청(2019년 4월 발표기준)

주 : 미얀마 회계연도는 4월 부터 이듬해 3월까지였으나 2018년부터 10월부터 이듬해 9월로 변경, 2018년은 4-9월만 집계(공백기간)



○ 주요 수출입 품목

- 미얀마는 천연자원, 의류, 농산물 등이 주요 수출품목
- 2017/18 회계연도까지 천연가스가 최대 수출품목이었으나, 2018년부터 봉제업 성장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의류가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
- 미얀마는 기계, 자동차, 석유 등을 주로 수입
- 전기, 유통, 기술 등 기초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제조업의 발달이 미비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

미얀마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 US\$ 백만)

순 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2017/2018	2018.2019 (2018.9월 까지)	품목명	2017/2018	2018/2019 (2018.9월 까지)
	총 수출	14,850.7	8,832.2	총 수입	18,687.0	9,853.3
1	가스	3,506.2	1,648.4	기계 및 운송수단	3,905.9	1,903.9
2	의류	2,591.6	2,246.6	정제된 광유	3,439.5	1,838.3
3	광물	920.1	583.4	비철금속 및 제조품	1,615.5	893.1
4	옥	761.4	416.5	전자 기기 및 기구	1,529.0	768.2
5	쌀	1,138.2	388.7	플라스틱	703.8	397.0
6	수산물 및 관련품	521	219.7	식용 식물성 기름 등	627.9	277.1
7	검은콩	344.2	128.1	의약품	532.2	274.6
8	옥수수	294.5	84.4	비료	325.4	212.8
9	녹색콩(Pedessein)	273.6	142.6	화학혼합물	218.9	98.7
10	나무콩(Pigeon pea)	99.6	99.6	시멘트	84.8	26.0
	기타	4,386.5	4,386.5	기타	6,645.2	3,163.6

자료원 : 미얀마 중앙통계청(201년 4월 발표기준)

주 : 미얀마 회계연도는 4월 부터 이듬해 3월까지였으나 2018년부터 10월부터 이듬해 9월로 변경, 2018년은 4-9월만 집계(공백기간)



나. 투자 동향

□ 투자 규모

○ 외국인 투자 규모

- 對미얀마 외국인 투자 누적 승인액 826억 달러를 기록(2019년 6월 기준)
- 2011년 민선 정부 출범 이후 오일 및 가스, 제조업 및 교통 분야 투자 급증에 힘입어 크게 확대
- 2017-2018 총 투자액 57억 달러를 기록, 2018년도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해 4월~9월까지 공백 기간에 투자규모는 17억 달러를 기록
- 2018.10월~2019년 6월까지 투자액은 31억 달러를 기록

연도별 對미얀마 투자규모

(단위 : US\$ 백만)

구분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18	2018	2018-2019. 6
금액	4,645	1,420	4,107	8,010	9,481	6,649	5,718	1,765	3,159

자료원 :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2019년 6월

주 : 연도별 승인액 기준, 미얀마 회계연도는 4월 부터 이듬해 3월까지였으나 2018년부터 10월부터 이듬해 9월로 변경, 2018년은 4-9월만 집계(공백기간)

○ 품목별 투자 동향

- 석유가스(US\$224억), 전력(US\$211억), 제조업(US\$108억), 교통/통신(US\$108억)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對미국 수출입 재개, EU의 GSP 지위 부여 등의 원인으로 봉제업 등 CMP 분야의 제조업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짐.
- 교통 및 통신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관광객 방문 수요 급증에 따른 호텔, 관광업 분야의 투자도 증가세
- 외국계 기업에 대한 무역업 개방 및 경제특구 개발 등으로 인해 무역업 및 제조업분야 투자 증가 전망



산업별 투자동향

(단위 : US\$ 백만)

구 분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 4월~9월	2018/2019 (6월 까지)
농업	20.3	39.7	7.1	-	134.4	10.6	14.0
어업/축산	96.0	26.9	8.2	96.6	27.6	32.9	100.2
광업	32.7	6.3	28.9	-	1.3	6.0	-
제조업	1,826.9	1,502.0	1,064.9	1,179.5	1,769.1	706.6	988.7
전력	46.5	40.1	360.1	909.8	405.7	92.6	93.3
석유/가스	-	3,220.3	4,817.7	-	-	-	10.2
교통/통신	1,190.2	1,679.3	1,930.9	3,081.1	901.6	314.1	1,474.4
호텔/관광	435.2	358	288.3	403.6	176.7	9.5	59.4
부동산개발	440.6	780.8	728.6	747.6	1,261.9	280.3	59.0
산업단지	-	-	10.0	-	34.0	34.4	48.4
기타	18.5	357.3	235.9	231.3	1,005.2	277.1	311.8
합계	4,107.1	8,010.5	9,481.2	6,649.8	5,718.0	1,764.7	3,159.7

자료원 : 미얀마 투자위원회(2019년 6월)

주 : 미얀마 회계연도는 4월 부터 이듬해 3월까지였으나 2018년부터 10월부터 이듬해 9월로 변경, 2018년은 4-9월만 집계(공백기간)

□ 국가별 투자 동향

○ 주요국 국가 투자 동향

- 싱가포르의 투자액이 가장 높으나, 최근 중국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
- 통계상 일본의 투자액이 낮은 것으로 보이나 싱가포르와 태국을 통한 우회투자, ODA 자금지원 등을 포함하면 최대 투자국 중 하나
- 2017년 8월 로힝야 사태 발발로 인해 미국, 유럽으로부터의 투자가 감소
- 누적승인액 기준으로 1위 싱가포르(US\$208억), 2위 중국(US\$205억), 3위 태국(US\$112억), 4위 홍콩(US\$81억), 5위 영국(US\$45억), 6위 한국(US\$39억) 순



국가별 외국인 투자유치

(단위 : US\$ 백만)

국별	건수	투자액	비중(%)	산업별	건수	투자액	비중(%)
싱가포르	310	21737.0	26.8	석유/가스	154	22,420.6	28.2
중국	359	20,680.2	25.5	전력	21	21,178.1	26.7
태국	129	11,309.4	13.9	제조업	1084	10844.4	13.8
홍콩	203	8,122.7	10.0	교통/통신	60	10,811.4	13.3
영국	96	4,525.4	5.5	부동산 개발	55	5,315.3	6.5
한국	175	3,962.6	4.9	호텔/관광업	80	3,095.7	3.8
베트남	25	2,165.2	2.6	광업	71	2,904.9	3.5
말레이시아	66	1,963.1	2.4	축산/어업	62	709.6	0.8
네덜란드	24	1,554.8	1.9	농업	32	409.0	0.5
일본	116	1,208.4	1.4	산업단지 개발	7	320.1	0.4
인도	30	763.6	0.9	건설	2	37.8	0.0
기타	219	2,857	4.2	기타 서비스	124	2475.9	3.0
합계	1,752	80,892.0	100	합계	1,752	80,892.0	100
SEZ	112	1,708.6	100	SEZ	112	1,708.6	100
총합계	1,864	82,600.6	-	총합계	1,864	82,600.6	-

자료원 :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주 : 누적승인액 기준(2019년 6월까지)

회계연도별/국가별 투자동향

(단위 : US\$백만)

구분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 4월~9월	2018-2019 (6월까지)
싱가포르	2,340.1	4,297.2	4,246.8	3,820.7	2163.9	724.4	2,005.9
중국	56.9	511.4	3,323.8	482.5	1395.2	304.7	437.4
네덜란드	-	302.4	438.0	5.0	533.9	-	26.4
한국	60.9	299.6	128.0	66.4	253.9	77.0	76.2
홍콩	119.1	625.5	224.6	213.7	211.1	174.7	9.7
영국	156.9	850.7	75.3	54.3	251.9	67.9	289.0
태국	489.1	165.7	236.1	423.0	123.8	64.6	197.5
말레이시아	56.4	6.7	257.2	21.3	21.8	7.3	1.1
베트남	142.0	175.4	4.6	1,386.2	20.8	50.3	14.5
인도	26.0	208.9	224.2	-	10.9	19.9	-
일본	60.9	85.7	219.7	60.423	384.1	134.6	37.7
미국	-	2.0	2.6	-	128.7	55.9	-
기타	36.0	481.095	102.3	116.2	346.7	85.8	64.3
합계	4,107.1	8,010.5	9,481.2	6,649.8	5718.0	1764.7	3,159.7

자료원 : 미얀마투자위원회(2019년 6월 발표기준)

주 : 미얀마 회계연도는 4월 부터 이듬해 3월까지였으나 2018년부터 10월부터 이듬해 9월로 변경, 2018년은 4-9월만 집계(공백기간)

4. 한국과의 무역 및 투자 동향

가. 무역동향

□ 對미얀마 수출입 동향

- (수출) 2019년 6월까지 전년대비 1.3% 감소한 2억 4,445만 달러 기록
 - 전년도 수출에서 상당량을 차지하던 철강제품은 2016년 하반기 정부의 건설 프로젝트 보류 및 취소로 인해 수출 급감(전년 동기대비 89.4% 감소)
 - NLD 정부의 제조업육성 정책 방향에 따라 산업기계, 식물, 수송기계, 플라스틱제품, 석유화학, 건축 기자재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전망
- (수입)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 봉제, 가발, 가방 등 저임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섬유제품 등 단순임가공 원료 역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의류, 콩, 냉동어류 등 농수산물 수입도 지속 증가세

대미얀마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 US\$천,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11	666,742	39.3	298,681	86.8	368,061
2012	1,330,892	99.6	351,164	17.6	979,728
2013	705,109	-47.0	487,769	38.9	217,340
2014	800,131	13.5	579,894	18.9	220,237
2015	659,895	-17.5	505,679	-12.8	154,215
2016	760,717	15.3	458,666	-9.3	302,051
2017	573,209	-24.6	463,336	1.0	109,837
2018	534,059	-6.8	536,583	15.8	-2,524
2019.6	274,455	-1.3	237,044	13.3	37,41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2019.6월 기준



□ 對미얀마 수출

○ 수출입 역전 현상 발생

- 2018년 기준, 수출액은 5억 3,619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6.8% 감소.
- 직물(US\$9,040만), 산업기계(US\$6,036만), 수송기계(US\$5,334만) 순
- 2018년 들어 무역수지 흑자가 적자로 역전됨. 올해 미얀마 내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 및 수입 감소 등의 영향이 있었음.
- 2019년 3월 기준 1억 1776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
- 직물(US\$2,053만), 산업기계(US\$1,391만), 섬유제품(US\$999만) 순

對미얀마 10대 수출품목

(단위 : US\$천, %)

순 위	품 목 코 드	품 목 명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수출액	573,209	-24.6	534,059	-6.8	274,455	-1.3
1	43	직물	79,499	-2.0	90,400	13.7	45,627	3.8
2	44	섬유제품	47,235	7.2	52,669	11.5	30,054	-4.3
3	72	산업기계	66,138	11.9	60,368	-8.7	27,125	-14.1
4	74	수송기계	74,053	33.5	53,349	-28.0	24,977	-20.1
5	22	정밀화학제품	39,703	-1.9	34,716	-12.6	19,545	14.6
6	31	플라스틱제품	31,158	-18.2	28,771	-7.7	17,061	-7.8
7	75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2,548	-24.6	2,234	-12.3	13,284	1,444.0
8	62	비철금속제품	11,183	-39.9	16,077	43.8	10,613	36.2
9	84	전기기기	34,649	-19.0	27,082	-21.8	9,362	-37.9
10	21	석유화학제품	11,195	-18.0	16,582	48.1	9,241	15.1

자료원 : 무역협회 K-Stat, 품목코드는 MTI 2단위 기준

주 : 순위는 2019년 6월 기준

對미안마 수입

○ 수입량 증가세

- 2018년에는 15.8% 증가한 5억 3,658만 달러를 기록, 섬유제품(17.9% ↑), 농산물(3.8% ↑), 비철금속제품(33.4% ↑), 생활용품(48.9% ↑)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9년 6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13.3%가 증가한 2억 3,704만 달러를 기록, 섬유제품(12.8% ↑), 농산물(13.2% ↑), 생활용품(39.6% ↑) 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對미안마 10대 수입품목

(단위 : US\$천, %)

순 위	품 목 코 드	품 목 명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금 액	증 가 율	금 액	증 가 율	금 액	증 가 율
		총 수입액	463,287	1.0	536,583	15.8	237,044	13.3
1	44	섬유제품	353,484	2.1	416,673	17.9	171,705	12.8
2	01	농산물	35,968	-14.6	37,340	3.8	18,831	5.9
3	52	기타 생활용품	26,766	25.8	30,131	12.6	13,894	5.5
4	62	비철금속제품	10,984	104.2	14,655	33.4	9,635	13.2
5	51	생활용품	9,000	12.0	13,401	48.9	7,886	39.6
6	03	임산물	8,706	6.7	8,792	1.0	4,081	-7.2
7		수산물	4,308	-2.7	5,792	34.5	3,599	11.1
8	83	전자부품	1,384	-67.4	1,658	19.8	2,283	488.1
9	72	산업기계	7,597	2,374.5	2,202	-71.0	1,535	7.1
10	25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	1,925	31.3	2,233	16.0	1,399	50.8

자료원 : 무역협회 K-Stat, 품목코드는 MTI 2단위 기준

주 : 순위는 2019년 6월 기준



나. 투자동향

□ 주요 진출기업

○ 진출기업 동향

- 수출입은행 통계의 법인설립건수는 425개(1990~2019.3월 누계)이나, 활동 중인 기업은 약 300개사, 고용 인원 6만 명으로 추정
- 포스코인터내셔널(총 49억 달러 투자)을 중심으로 2012년 이후 자원개발 등 대규모 투자 실시

* 총 12개 생산정에서 가스 발굴, '00년 이후 동남아에서 발견된 가스전 중 최대 규모

업 종	주요기업
제조업	포스코(아연강판), CJ(식용유), LS가온(전선), 아주산업(콘크리트파일), 요진(시멘트), 신성통상(봉제), 골든샤인(봉제), 코라오(현대자동차 CKD)
금융업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DB 손해보험
운수업	대한항공, 대우로지스틱스, 판토스로지스틱스
건설업	GS건설, 석우종합건설
농업	포스코(쌀 가공), CJ(사료), 선진(사료)
공공기관	KOTRA, KOICA, LH,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무역	포스코인터내셔널(에너지, 호텔 등), LG상사, 한화무역
프랜차이즈	CGV(영화관), 피자마루, 롯데리아, 본촌치킨
기타	문엔지니어링(IT), 수성엔지니어링(철도/도로설계), 경동엔지니어링(철도/도로설계)

□ 한국의 대미얀마 투자 현황

- (투자액) 신고액 기준으로 한국의 對미얀마 투자(1990년~2019년 3월)는 57억 518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실투자액은 33억 8,855만 달러를 차지

* 2018년 투자 신고금액은 약 1억 9,171만 달러, 실투자액 약 2억 1,339만 달러를 기록

한국의 대 미얀마 연도별 투자통계

(단위 : 건, 사, US\$천)

연도	對미얀마 직접투자			
	신고건수	설립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9	8	3	3,533,271	350,894
2010	11	2	233,038	197,388
2011	21	7	108,885	422,988
2012	31	13	44,218	327,812
2013	98	46	155,484	513,336
2014	111	56	462,141	312,336
2015	154	53	71,496	243,881
2016	177	66	329,118	362,928
2017	199	61	319,000	279,627
2018	158	55	191,719	213,392
2019	29	8	44,833	62,469
전체누계 (1990-2018)	1,124	425	5,751,815	3,388,559

자료원 : 한국 수출입은행

- (업종별) 법인 수 기준으로 제조업(주로 봉제업) 및 광업의 투자가 전체 50%를 차지. 금액 기준으로 대우 E&P의 가스전 투자(US\$27억)가 포함된 광업이 전체 76% 이상을 차지하며, 운수업 및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한국의 대 미얀마 업종별 투자통계

(단위: 건, 사, US\$천)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2		260	0.58	910	1.46
광업	-				24,626	39.42
제조업	20	7	18,117	40.41	14,817	23.72
건설업	1	1	15	0.03	277	0.44
도매 및 소매업	1	-	4,943	11.03	527	0.84
운수 및 창고업	-	-	-		1,115	1.78
숙박 및 음식점업	-	-	-		98	0.16
정보통신업	1	-	280	0.62	280	0.45
금융 및 보험업	3	-	14,227	31.73	10,000	16.01
부동산업	1	-	6,990	15.59	9,780	15.66
임대 서비스업	-	-	-		19	0.03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20	0.03
합계	29	8	44,832	100	62,469	100

자료원 : 한국 수출입은행(2019년 3월말 발표 기준)



III. 출장정보

1. 출입국 / 비자

○ 항공

- 미얀마 양곤국제공항에 대한항공(KE) 직항노선이 매일 운행되며,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등의 국제노선도 있음.

○ 비자

-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 관광객은 비자가 면제됨. 체류 가능 기간은 최대 30일
- 상용비자의 경우 양곤국제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최대 체류기간은 70일로, 수수료는 US\$ 50임.

○ 주한 미얀마 대사관

- 주소 :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4-1
- 전화 : 790-3814, 팩스 : 790-3817

2. 기후

○ 열대성 우기, 저온건기(겨울), 고온건기(여름) 등 3계절로 구성

- 우기는 5월말~10월말, 저온건기는 11월~2월 중순, 고온건기는 2월말~5월 중순
- 우기는 한국의 장마철과 기후가 비슷하며 열대성 스콜이 하루에 몇 차례 내릴 수 있음. 강수량이 매우 많으며 고온 다습함.
- 저온건기 특히, 12월~1월은 아침저녁으로 한국의 초가을 날씨와 비슷하나, 낮에는 약간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정도임.
- 고온건기 특히, 4월~5월은 한낮 기온이 40도가 넘는 등 밖에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경우 위험함.

3. 현지화

○ 짜트(Kyats)화 사용

- 미얀마 환율체계는 시장 환율체제이며, 2019년 6월 기준 US\$1당 1,526짜



- 미얀마 시중 은행과 호텔 등에서 환전이 가능하나, 여행자 수표는 통용되지 않음.
- 고액권(US\$50 이상)과 저액권(US\$20 이하)의 환전환율이 다르며, 고시는 US\$100 교환 기준
- 신용카드는 일부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 대형마트에서 사용가능하나 이외에는 사용이 어려움.

4. 전화

○ 휴대전화

- 미얀마에 4개 통신사가 있으며, 여행자 심카드는 양곤국제공항에서 구매 가능
- Telenor 통신사 기준 데이터 10GB + 국내 통화 40분에 12,500짜트(약 US\$ 10)의 패키지로 30일간 사용 가능

○ 국제전화

- 국제전화요금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해야 하며, 컬렉트 콜(수신자 부담전화)은 없음.
-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 호텔에서는 1분당 약 5달러, 일반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는 약 400짜트(약 0.3달러) 정도
- 한국으로 전화방법 : 00(국제전화) - 82(국가번호) - XX(지역번호) - (전화번호)

5. 전기 / 교통

○ 전력 사정

- 미얀마의 전기사정은 매우 열악하며, 수도인 양곤조차도 수시로 정전됨.
- 정전 시 호텔 등 주요 건물은 자체 발전기를 구비하고 있어 수십 초 이내로 전기사용 가능
- 전압은 220V, 50HZ 이기 때문에 한국산 전자, 전기제품을 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음.

○ 교통

- 양곤 시내에서 이용가능한 대중 교통수단은 택시가 유용함. 단, 미터기기가 없기 때문에 승차 전에 가격을 협상해야 함.
- 최근 Grab, Get Ride 등의 콜택시도 이용 가능함. 시내 이동의 경우 요금은



US\$ 2~US\$ 3(3천~4천 짜트) 내외

6. 보건위생

○ 낙후된 보건 환경

- 아열대성 기후 하에서 보건시설이 낙후되고 위생 관념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염병, 기생충 감염 및 풍토병(말라리아, 뎅기열 등)에 유의
- WHO 통계에 따르면 미얀마 인구의 1/3이 간염에, 약 60만 명이 AIDS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짐.
- 물은 반드시 끓여먹거나 생수(Purified Drinking Water)를 이용

7. 주요 연락처

○ KOTRA : 01-9253346~50

- 이희상 관장 09-44883-0541, 안지성 부관장 09-8948-00882, 문서영 부관장 09-504-3479, 류태현 과장 09-4496-70956

○ 대사관 : 01-527-142~4

○ 재미얀마 한인회 : 09-4311-8713

○ 한일관 식당 : 01-535-041, 662-475

○ 한국관 식당 : 01-662-757

○ 아리랑 식당 : 01-536-508

○ 대원각 : 01-401-229

○ 대한항공 : 01-505-950 (Ext : 2002)

○ 미얀마 항공 : 01-967-0021~32

○ 타이 항공 : 01-934-5210~4



8. 유용한 현지어 표현

- 안녕하세요? : 밍글라바
- 감사합니다 : 제주뎌바레
- 미안합니다 : 쿠잉홀룻바 (쏘리바)
- 이름이 무엇입니까? : 나메 벨로코바들레
-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 폰넘버 벨라우레
-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 에잉따 베말레
- 식사 하셨습니까? : 싸 빠빌라
- 안녕히 계십시오 : 빠얀바 온메
- 가격이 얼마입니까? : 벨라우레
- 비싸군요. 좀 깎아 주세요 : 세찌데, 네네 쇼빠바

9. 문화적 주의 사항

- 불교
 - 미얀마인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관계로, 불교가 생활 속의 한 부분으로 깊게 자리 잡고 있어 불교나 스님을 경시하는 행동이나 표현은 절대 삼가야 함.
- 오른손 사용
 - 미얀마에서 명함이나 선물을 건넬 때는 오른손을 사용해야 하며, 왼손은 불결하다고 생각 하며 화장실 용무를 볼 때를 빼고는 모두 오른손을 사용
- 식사습관
 - 미얀마인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 메뉴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함. 대부분의 미얀마인이 쇠고기를 먹지 않으며, 일부는 돼지고기 역시 먹지 않음. 따라서 가장 무난한 메뉴는 닭고기 와 생선으로 구성된 요리임.



○ 정치적 금기

- 아웅산 수지 여사 등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조심해야 함.
- 정부 관계자 중에는 현역 군인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무실에서 늘 군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대화 주제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음.

○ 복장

- 미얀마인들의 공식 복장 및 평상 복장은 남녀 모두 론지(미얀마 전통의상으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의 일종)에 슬리퍼(엄지발가락을 별도로 끼워 넣는 한국 개념의 굽 없는 쪼리)임.
- 공식행사에도 서양식 정장보다 전통 복장을 입고 참가하는 경우가 많음.

10. 비즈니스 에티켓

○ 바이어 특징

- 많은 바이어들이 특정 분야에 특화되지 못하고 어떤 제품이라도 취급 하려는 경향이 있어 상담 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어떠한 경우에도 'I am Sorry'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민족으로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함.

○ 미팅시 주의사항

- 교통상황 등으로 인해 15~30분 정도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기본이며, 상대방(외국인)이 이정도 늦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편
- 미얀마인의 기본복장이 론지와 슬리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담 시에도 하의는 론지를, 상의는 넥타이 없이 와이셔츠를 입는 편이며, 신발은 슬리퍼를 착용하므로 복장을 보고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함.

○ 정부 관료

- 미얀마 관료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존경 및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직위가 올라갈수록 정도가 심함.
- 옷차림, 대화 기법 등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 전통 식품(인삼 등)이나 소품(인형, 탈 등)을 선물로 준비하면 효과적

IV. 주요도시 및 문화유적

1. 양곤(Yangon)

가. 연혁

- 미얀마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
 - 1755년 Dagon에서 Yangon("end of strife"의미)으로 명칭 변경
 - 1855년 이래 수도로 지정, 2011년 11월 네피도 수도 이전으로 양곤은 수도 기능 상실하였으나 여전히 미얀마의 경제 중심지

나. 방문 명소

사진	개요
	○ 쉐다곤 파고다(Shwedagon Pagoda) - 금(Shwe는 미얀마어로 금을 의미)으로 만든 다곤의 파고다라는 뜻으로 대표적인 종교 성지. 부처의 생존 시 미얀마 상인이 8개의 부처님 성발을 얻어와 안치한 후 불탑 건립. 초기 파고다는 약 20미터에 불과했으나 계속 증축되어 현재 99미터 높이에 이름 - 미얀마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불교 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미얀마 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볼 수 있는 장소 - 파고다 방문 시 맨발로만 입장 가능 - 매일 05:00~21:00 개방
	○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 구 왕실 사용 유물 전시 - 매일 10:00~16:00 개관
	○ 순교자 묘지(Martyrs' Mausoleum) - 고 아웅산 장군 및 독립투사 안치 - 1983년 북한에 의한 폭탄 테러로 우리 정부 외교사절 순국, 순교자비 건립 - 매년 7월 19일(순교자의 날)만 일반인에 개방했으나, 2013년 6월부터 연중 일반인에 개방(단, 월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보석박물관(Gems Museum) - 미얀마산 루비, 사파이어, 옥 등 원석 전시 - 매일 10:00~16:00 개관(월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보족마켓(Bogyoke Aung San Market) - 시내중심부의 최대 전통시장 쇼핑센터 - 보석, 기념품, 일상용품 등 다양한 품목 진열 - 물품들은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 흥정 가능 - 10:00~17:00 (월요일 제외)



2. 양곤 주변

- 바고(Bago)
 - 15세기 몬족왕조의 수도로 길이 55m의 휴식하는 부처상(Shwethalyaung) 소재
 - 양곤에서 80Km 북부에 소재
- 짜이티오(Kyaiktyio)
 - 짜이토산의 정상 모서리에 걸쳐있는 신비한 둥근 바위 (금색 치장)
 - 양곤에서 150Km 북동부에 위치

3. 지방 도시

- 만달레이(Mandalay)
 - 미얀마 마지막 왕조의 도읍지로 왕궁, 불교사원 등 소재
 - 양곤에서 약 1시간 비행거리(668Km)인 북부에 위치
 - 인근에는 아무라프라, 아바, 민군, 사가인, 피눌린 등 유적지 산재
- 바간(Bagan)
 - 11~13세기 건립된 2,000개의 불탑 및 사원 등이 보존된 주요 관광 유적지
 - 양곤에서 약 1시간 비행거리인 북서부에 위치
 - 인근(바간에서 50 Km)에는 미얀마 전래신(Nat) 유래를 가진 Popa산(1,500m, 휴화산) 소재

4. 자연 관광지

- 인레 호수(Inlay Lake)
 - 미얀마 북부 소재 최대호수(길이 22Km, 폭 10Km)로 수려한 자연 경관
 - 양곤에서 헤호(Heho)공항 간 약 1시간 비행거리
- 나팔리 해변(Ngapali Beach)
 - 서부해안의 수려한 천연 해변
 - 양곤에서 35분 비행거리인 탄뎬(Thandwe)시에 인접

[illegible]

[illegible]